

중동 Terrorism의 대두와 전망

최기남*

<목 차>

- I. 서 론
-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 III. 중동 Terrorism의 기원과 대두
- IV. 중동 Terrorism의 양상과 전망
- V. 결 론

<요 약>

Terrorism은 21세기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과정에서 핵심적인 가치관으로 등장하였으며 인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국제 Terrorism을 리드하고 있는 중동지역 Terrorism은 인류의 수세기 동안 농축되어온 종교적 이념대립과 지역적 생존권 다툼에서 기원하며, 종교 문화적 단층에서 발생하는 충돌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9.11 WTC Terror를 분기점으로 이슬람 원리주의 Terrorism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서방세력의 대립으로 가시화 되었으며 그 전망은 부정적이다

미국의 Terrorism에 대한 강경한 대외정책으로 국가지원 Terrorism은 근절되었지만 이슬람권 아랍 민족의 반미감정의 결집은 전투적 이슬람 원리주의 전사들에 의한 반미·반서방 Terror를 심화시킬 것이며 현재 자생적으로 발생 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도 당면한 위협이며, 이에 대한 대비는 종교, 민족 등 근본적인 문명의 패선에 대한 접근을 통해 능동적인 국가적 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제어 : Terrorism, 중동Terrorism, 이슬람원리주의】

* 대통령 경호실, 경호안전학 박사

I. 서론

21세기의 서두에서 인류는 Terrorism의 공포 속에서 Terror와의 전쟁으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장식했다. 20세기 말에 진행되었던 공산권의 몰락과 범세계적 거대 위협이었던 소련의 해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 국제협력에 의한 인류 평화와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과정에서 양극체제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문명간의 충돌양상(이희재역, 1997:192)이 나타나고, 유일한 초강대국 미국이 자국이익에 기초한 도덕적 선을 구현하기 위해 군사력 위주의 패권주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Neocon(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대로 구 소련을 대신할 새로운 악으로 호전주의적인 이슬람원리주의 세력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인류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새로운 국면이 야기되게 되었다.(중앙일보, 2003. 5.12)

2000년 9월에 발표된 미국 방위재건 보고서에서 구체화된 PNAC(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는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World Trade Center Terror를 계기로 미국의 대외정책으로 현실화되었고 Terrorism이 21세기 신세계질서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가치관으로 상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9.11 WTC Terror는 미국의 본토방어에 결정적인 허점을 보인 반면 포스트 냉전시대를 준비하던 미국에게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응징과 보복으로 2차에 걸친 전쟁을 통하여 문명의 충돌이라는 국제적 우려속에 중동지역 아랍세계의 이슬람 원리주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기독교 세력간의 대립을 명확하게 시현하였다. Terrorism과 전쟁의 악순환 과정에서 세계 각국은 Terror를 가치관으로 한 선과 악의 선택을 강요당했으며, 다면적 국가이익을 위한 국가적 대외정책과 국제협력 등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한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협조적 국가안보정책 개념은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 Terrorism에 대한 대외정책의 공조뿐만 아니라 군사적 혈맹관계에서 전투병을 포함한 대규모 군대를 이라크에 파병하는 선택을 하였다. 이는 아랍지역 이슬람세계의 잠재적 적대감정을 자극하게 되었으며 우리 국민에 대한 이슬람 원리주의 Terror단체와 이라크 저항세력에 의한 납치·참수와 같은 Terror와 수많은 국내·외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Terror근절을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은 국가적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자국의 이익에 기초한 다자간 국제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의 대테러정책 수립에 있어 현 국제 Terrorism을 리드하면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동테러리즘의 종교적 기원과 갈등관계, 지역적 대립과 현실적인 대두 과정을 고찰하고 국제 Terror 양상속에 중동 Terrorism을 전망함으로써 직면한 위협에 대처하는 정책 수립의 기초적 접근 교두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테러리즘의 개념

테러리즘은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임에는 국제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점은 국제사회가 상호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는 테러리즘에 대한 의미의 정립과 합의이다. 그러나 수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국제적 협약을 위한 포괄적 정의를 도출하기 위해 국제회의¹⁾가 수차례 걸쳐 개최되어 격론을 벌인바 있으나 보편적 정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테러리즘의 동기, 대상, 범위, 주체, 이념 등의 포함 여부 그리고 학자들과 테러리즘 전문가들의 시각에 따라 테러리즘이 달리 정의됨으로써 테러리즘의 정의에 관한 연구와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최진태, 1997:17).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정의를 내리고자한다.

미국 민간 시큐리티 자문협의회(The Private Security Advisory Council) 테러리즘 범죄예방대책위원회(Committee on the Prevention of Terror- istic Crimes)는, 테러리

1) 1937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에 의한 테러리즘의 예방과 처벌을 위한 협약(Convention for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errorism)을 위해 국제적인 개념의 통일이 시도되었으며, 2001년 9월11일 테러를 계기로 동년 10월 16일부터 UN총회 제6위원회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를 1주일간 개최하여 「포괄적인 테러 협약」을 위한 테러리즘의 정의를 도출하고자 논의하였으나 국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 정의를 합의하는데 실패하였다.

즘을 “협박, 위압, 강요,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정치적, 경제적 목표달성을 기도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범죄행위 또는 그 위협이다”(William Cunningham and Philip Gross, 1978:3)라고 하였으며, 영국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의 Paul Wilkison 교수는 “주로 인질억류나 총포 등의 위협을 통하여 정부를 그들의 요구에 굴복시키기 위한 강압적 위협의 수단”이라고 하여 국가에 대한 반국가집단의 투쟁이라고 강조하면서, “선전포고 없는 전쟁(Undedared War)”(최진태, 1997:20)이라고 규정하였다.

김두현 교수는 “테러리즘은 주권국가 혹은 특정단체가 정치, 사회, 종교, 민족주의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의 사용 혹은 폭력의 사용에 대한 협박으로 광범위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특정 개인, 단체, 공동체 사회, 정부의 인식 변화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상징적, 심리적 폭력행위의 총칭이다”(김두현, 2004:21)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 정부는 테러리즘을 사건 배후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동기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테러리즘 사건은 그것을 실행한 테러리스트 집단이 확인되는 특정한 것도 많지만, 그것 이외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은 애매한 것도 있다. 세계적으로 테러리즘에 대한 연구의 선도적 역할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무성은 “국가가 아닌 단체 또는 비밀조직원에 의한 계획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비전투원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통상 사건을 인지하는 일반인에게도 그 영향력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미연방 수사국은 “정치적, 사회적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미연방이나 州 형법에 위반하여 정부나 민간전체 내지 일부를 위압, 강요하는 폭력행위, 인명 위해행위이다”라고 하였다. 이외에 국방부, FBI, CIA 등이 유사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최진태, 1997:17-18).

일반적으로 테러란 특정한 위협이나 공포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이 느끼게 되는 극단적인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극단적인 두려움의 근원이란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적 재해와 건물의 붕괴, 화재, 대형 교통사고 등 인간의 실수로 인한 인적 재해를 포함하여 폭력행위, 잔혹한 살인, 집단적 폭행 등의 범죄적 행위 등 인간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유발하여 불안한 심리상태를 조성하는 모든 현상을 총칭한다. 흔히 테러리즘과 동의어로 사용하거나 혼돈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의미상에는 큰 차이가 있다. 즉 테러는 단순한 폭력사건이나 재해에 불과하지만 테러

리즘이란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사용하여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자연재해나 사고 등 테러는 테러리즘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나 테러리즘은 테러를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상을 바탕으로 경호적 관점에서 보면 테러리즘이란 개인이나 집단 또는 국가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이념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폭력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 혹은 상징성있는 인물이나 기관, 장비 등의 목표물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여 공포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물리적, 심리적 폭력행위이다.

이러한 테러리즘의 정의 속에는 몇 가지 속성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폭력의 사용 혹은 폭력 사용의 위협이 존재한다. 즉, 여러 가지 물리적인 힘에 의한 살상과 파괴 등의 피해를 확산시킴으로서 상대방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심리적인 공포감을 유발하여 주체자의 의도를 달성하는 효과를 노리게 된다.

둘째,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결과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는 목적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의 수단이거나 부의 편중이나 부패한 권력의 남용에 대한 생존권적 저항, 정치적 패권이나 선거 등의 정치적 과정에서 승리를 위한 수단, 종교적 이념 분쟁이나 문화적 단층에서 오는 충돌, 과거 문제에 대한 감정대립의 표출, 자원이나 이권분쟁, 국제 정치외교상의 공작수단 등 고도의 예측된 결과에 대한 기대인 테러리즘의 목적이 반드시 존재한다.

셋째, 조직적인 사전 준비과정이다. 우발적인 동기에 의해 결성된 급조의 조직이나 단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사전에 이념과 의기투합과정을 거쳐 결성된 조직이 같은 성향의 계층이나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그 목표를 정하고 수단과 방법, 시행시기, 장소 등을 선택하는데 있어 전략적, 전술적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현장을 답사하고 정보를 제공받는 등의 치밀한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 그 피해의 확대나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넷째, 효과확대를 위한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양상을 가지게 된다. 테러리즘은 전면적인 전쟁과 비교해 최소한의 비용과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비대칭적 전투방식이다. 따라서 테러리스트들은 피해의 확대와 이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그 방법과 목표의 선정에 이를 적

용하게 되며 현대 과학의 발달과 대도시의 형성, 인구의 밀집화 등은 이런 목표달성에 알맞은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즉 테러리즘의 예방과 위기관리는 어렵고 테러리스트의 활동은 쉬워지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으며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다섯째,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대량살상이다. 특히 21세기 뉴테러리즘의 특징 중의 하나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대량살상의 양상이다. 과거 테러리즘의 금기였던 목적과 무관한 피해에 대한 주변의 비난이나 최소한의 인류 도덕적 상식의 한계가 무너져 버린 것이다. 이를 웅변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이 9·11 테러이며 생화학, 핵무기 등 군사적 대량살상 무기의 사용도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여러 가지 테러리즘의 요소를 종합해보면 그 본질은 폭력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나 그 위협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2. 테러리즘의 발생원인

테러리즘은 왜 발생하는가? 현재도 세계도처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테러리즘단체가 활동하고 있지만 그 원인은 자신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주장되고 대립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금세기 인류에게 죽음의 공포를 주며 삶의 질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등장하여 인류공적이 되어버린 테러리즘의 근절을 위한 노력은 첫 번째가 그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발생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는 테러리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으며 나온다 해도 특정사건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테러리즘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다. 사회현상과 경제,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인간관계의 심리적 본질에 대한 연구, 인류사회의 발전과정에서의 생태학적 원리 등 주변학문과 연관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류방법이나 학문적 배경에 따른 접근 방식이 다를 뿐 결과는 대동소이하며 뚜렷한 성과는 부족한 상태이다. 이런 접근 방법의 차이는 인간관계의 본질적 테러 심리를 분석하는 방법과 정치사회학적으로 테러사건을 위주로 분석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테러리즘의 정의를 내리는 것처럼 발생원인의 근본적인 규명은 테러리즘의 정당성에 대한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보편성있는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원인을 종교적 측면,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 보고자한다.

1) 종교적인 이념의 대립과 갈등

종교적 이념대립에 의한 갈등이 폭력을 동원한 분쟁으로 발전되는 경우는 대개 민족의식과 혼합되어 생존권 다툼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 북아일랜드의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간의 분쟁, 인도의 편잡주 시크교도와 힌두교도, 중동지역의 이란, 이라크, 터키의 쿠르드족, 아르메니아인, 스페인의 바스크족, 스리랑카의 타밀족 등 세계도처의 인종간 분리 독립투쟁은 종교적 이념대립이 민족간의 생존권을 건 폭력 사태로 발전한 경우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기독교와 이슬람교간의 뿌리 깊은 종교적 이념대립은 이스라엘의 건국과 함께 아랍민족주의의 단결과 팔레스타인땅에 대한 정통성이 개입된 생존권다툼으로 발전하였고, 9·11 테러를 계기로 하여 21세기 인류를 테러와 전쟁의 악순환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가장 큰 가치관으로 테러리즘이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리즘은 알라신이 만든 신성한 세계를 미국과 서구사회의 기독교 문명이 오염시켰다고 주장하며 타도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이를 위한 테러는 성전으로 정당화하며 테러리즘을 수단이 아닌 종교적 목적 자체라고 투쟁이론을 정리하여 이를 전파함으로써 현대 테러리즘의 가장 큰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종교적 이념에 의한 테러리즘은 자발적인 성전과 민족적인 애국활동으로 영웅시하므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종교적 이념에 의한 주요 테러리즘단체로는 팔레스타인하마스, 팔레스타인지하드, 인민해방전선, 필리핀 아부사야프그룹, 알카에다, 제마이슬라미야, 우간다 신의 저항군 등을 들 수 있겠다.

2)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투쟁

정치적으로 소외 또는 억압받고 있거나 열세의 무력을 가진 정치집단의 가장 손쉽게 자신의 정당성과 사상을 표현하는 수단이 테러리즘이다. 소수의 과격 급진적 정치사상을 가진 집단에 의한 정부전복 기도나 그 후원세력에 대한 보복과 저항의 표시로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테러리즘, 국가에 의해 진행되는 정적의 제거, 부정적 통치행위를 은폐하고 정치적 충격을 위해 행해지는 폭력행위도 같은 범주의 정치

적 목적달성을 위한 테러리즘으로 볼 수 있다.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테러리즘이 확산되는 원인은 개인이든 특정집단이나 계층이든 간에 기존 정권을 타도하고 자신들이 중심이 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내는 데 있어 테러리즘은 가장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후진국형 국가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정적에 대한 폭력, 정치지도자 암살, 구금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 폭력은 국민에 대한 설득이나 선거에 의한 승리에 자신이 없거나 정치적 자금이나 노력 등 투자를 손쉽게 하기 위한 비민주적 사고방식으로 정치적 권력의 폭력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또한 민족적 자존심이나 감정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폭력을 수반한 대립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다. 정치적 테러리즘을 확대하여 생각하면 나라와 나라사이의 국제테러리즘의 발생원인도 국제 정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국제간의 영토분쟁, 자원 확보 등 국가간 이권문제, 민족적 자결권과 민족감정대립, 세계 정치외교적 헤게모니를 가지기 위한 패권다툼 등 많은 정치적 현안문제에 대하여 자기편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테러를 사용하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특정 테러세력에 대한 금전, 무기, 기지제공 등 다양한 방법상의 지원 등 들 수 있겠다. 또한 Frantz Fanon이나 Carlos Marighella, Herbert Marcuse의 이론처럼 강대국의 식민정치에 대한 민족적 저항이나 민족해방운동, 정치적 억압, 민중의 지배계층에 대한 투쟁, 경제적 착취계층과 당하는 계층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저항과 국제간의 분쟁에서의 폭력의 사용도 중요한 정치적 발생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치적 원인에 의한 주요 테러리스트단체는 PLO, IRA, 스페인 바스크 조국해방, 세네갈 카사망스 민주세력운동,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등 민족주의적인 단체를 들 수 있겠다.

3) 경제적 빈곤 및 이권에 의한 갈등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난 사회적인 문제는 빈부의 격차이다.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생존과 번영의 욕구에 의한 투쟁은 자연생태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일 것이다. 부의 축적을 위한 노력과 경쟁은 개인에서 사회계층별 그룹으로 또는 경제단위별 회사나 동종의 업종 간 연합으로 발전되어 서로간의 이권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 이런 경쟁 속에서 불법적인 폭력이 등

장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계층에 의한 기존세력에 대한 폭력적 사회변혁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노비의 반란이나 농민혁명의 폭력적 저항은 비슷한 예이며 사회적 빈곤층의 무력을 이용한 혁명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적 무력투쟁 이론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테러리즘의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생태학적 경제원리는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같은 개념으로 적용되어 경제적 이권이나 자원의 확보, 해양이나 영토권분쟁 등 많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력의 사용이나 테러리즘에 의한 국가적 투쟁을 할 수 있다. 현대의 강대국에 의한 약소민족이나 저개발 국가의 지배논리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제국주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제적 빈곤이나 이권에 의해 발생하는 테러리즘은 국내적으로는 주요경제시설 목표에 대한 파괴나 경제적 주체요인의 납치, 살해 등을 들 수 있겠으며 마약이나 매춘 등 테러리즘집단의 운용을 위한 자금조달이나 세력의 확보 등을 위한 개인이나 범죄조직에 의한 테러리즘이 존재할 수 있겠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페루의 빛나는 길(S.L), 콜롬비아의 M-19 등을 들 수 있다. 국제간에는 에너지나 자원의 확보를 위한 공작으로 약소국가에 국가테러리즘단체의 육성하고, 지원을 통한 상대적 정권을 붕괴시키거나 괴뢰정부를 지원함으로써 자국의 경제적 이권을 유지하고 정권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대부분의 약소국가나 저개발국가의 테러리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사회가 발전하고 민족적 자각의식이 성장하면서 정치적으로 변질되어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으로 테러리즘의 대상이 역전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발생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어려우며 보는 관점이나 이해관계의 차이에 의해서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하겠다.

4) 사회, 심리적 변혁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의 발생원인은 Ted Robert Gurr박사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개인이나 집단, 계층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란 “기대와 실제이익간의 괴리” 또는 “가치기대와 가치능력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말하며 좌절공격이론(frustration-aggression theory)이라 칭하며 이를 야기 시키는 유형은 첫째, 열망적 박탈감(aspirational deprivation)으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국민들이 기대치는 상승하는데 체제가 이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는 데에

서 발생하는 박탈감이다. 둘째, 점감적 박탈감(decremental deprivation)으로 이는 국민의 기대치가 상승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능력이 퇴보하는 데에서 오는 박탈감이다. 셋째, 점진적 박탈감(progressive deprivation)으로 일정기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왔던 삶의 질이 앞으로는 발전되리라는 기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박탈감이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은 개발도상국이나 제국주의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제3세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Ted Robert Gurr의 상대적 박탈감이론은 결국 사회적으로 형성된 욕구의 정도가 사회적 욕구 만족도를 크게 초과할 경우 사회심리적인 좌절감이 형성되고 이는 폭력적 사태로 발전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1960년대의 탈식민지화 과정에서 민족해방 투쟁의 수단으로 테러리즘이 정당화되었던 제3세계국가에서 독립 후 제국주의 식민주의적 경제지배나 새로 등장한 정치권력에 의해 기대한 만큼의 삶의 질적인 향상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또 다시 경제·사회·정치적 불평등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내부적 테러리즘의 발생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5) 사회적 환경구조의 발달

현대문명이 고도화되고 사회적 환경구조가 변화되면서 인류 생태계에 반문명적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배민족과 피지배민족 간의 저항과 투쟁, 빈부격차 문제, 국제정치상 자결권과 자원문제, 종교문제, 심리적 박탈감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들이 심화되고 사회화될수록 테러리즘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현대사회의 생태학적 환경구조가 테러리즘의 사용을 편리하게 또는 그 효과를 증대시키고 확산시키는 구조로 변화해가고 있다.

그 여건의 변화는 첫째, 과학기술의 발달에 기인한다. 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화 사회를 촉진시켜 국제 사회속에서 약소민족에게 민족적 차별을 의식시키고 민족자결권에 대한 자각이 있게 하였으며 사회 구조속에서 자신의 소외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인식하게 만들었고 이런 부류간에 의사소통으로 계층화, 집단화를 이룩하는 수단을 제공하였으며 상호간 정보·기술·훈련 및 범행의지, 지령이 원활해지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또한 무기체계의 고도화는 대량살상능력향상과 소형정밀화 테러방법의

다양화를 촉진시켰으며 이는 테러리즘은 쉽게, 반테러리즘은 어려운 상황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대도시의 형성이다. 이는 테러리즘의 현장효과가 증대되는 작용을 하여 적당한 목표를 제공하게 되고 많은 도시민에게 위기감을 증대시켜 위협의 효과를 확산시키게 되었으며 테러리스트의 활동여건을 좋게 하는 무대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로서 뉴-테러리즘의 특징인 불특정다수에 대한 무차별적인 위협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셋째, 지구촌시대의 도래이다. 교통·통신시설은 세계의 이동 시간 단축과 정보교환의 용이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인류의 의식을 개방시키고 국가간 국경을 허무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인종간·종교간 교류와 혼합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였다. 이는 국지적인 테러리즘이 국제화되면서 수범이나 테러리스트 역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그 무대가 확정되어감을 의미한다. 이는 테러리즘의 예측이 어렵고 발생시 원인규명과 범인검거를 어렵게 하며 테러자금과 장비를 쉽게 유통시킴으로써 테러리즘이 만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에 국제간의 이권이나 정치 공작적 차원에서 국제테러리즘을 묵인하거나 은밀하게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테러는 투자에 비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압력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스컴의 발달로 인해 그 소기의 목적과 위협을 최단시간에 선전하므로써 테러리즘이 확산되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테러리즘학자 Jenkins는 “국제테러리즘은 우리시대의 기술에 잘 부합된다. 국제간의 빠른 체트기여행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테러리스트를 만날 수 있게 한다. TV·라디오 등 통신수단과 위성들은 거의 실제시간의 시도를 전세계 추종자들에게 제공한다. 무기와 폭발물은 무제한적 사용이 가능하고 현대사회는 테러리즘의 공격에 손쉬운 많은 적당한 목표물을 제공 한다”고 현대사회의 환경 구조적 취약점을 종합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3. Terrorism의 변천과정

현대의 Terrorism과 그 의미상에 상이한 점이 있지만 18세기 프랑스 대혁명 기간 중 Terrorism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여 사용되었다. 그러나 분명 인간이 집단생활을 영위하기 시작함과 더불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이용한 협박이나 과시하는 행위는 있어 왔을 것이다. 따라서 고전적인 의미로 이런 부류의 폭력을 이용한 행위를 모두 Terrorism에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그 변천과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 사회학적으로는 “Terrorism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존재해왔으며 생태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사회현상이며 이익추구를 위한 투쟁”으로 보는 학자의 견해가 있다. 근대에 와서 프랑스대혁명기간(1793~1794) 중 1793년 집권한 자코뱅파가 공포정치를 시행하면서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하고 사회를 통제하기 위하여 일종의 관제 Terrorism으로 폭력을 사용하며 대중연설 등에 Terrorism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러시아 나로드니스키의 인민 지지파에 대한 학살, 차리스트 지배자에 의한 공포정치, 러시아혁명 이후 소비에트정권에 의한 반혁명파에 대한 적색 Terrorism, 루이19세의 왕정복고 후 나폴레옹파에 대한 백색 Terrorism 등으로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Terrorism을 인류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그 성격이나 동기, 목적, 수단 등의 변화과정과 연계하여 시기별로 분류해보면, 고대부터 Terrorism이란 용어가 등장하고 사용되기까지를 고전적 Terrorism시대라고 본다면 그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근대국가의 형성과 민족의식에 의한 민족해방투쟁시기를 근대적 Terrorism시대라고 볼 수 있으며, 이후부터 1990년대 후반 New Terrorism이 등장하기까지 냉전시기 국가 Terrorism의 등장과 국제 Terrorism이 성행하던 시기를 현대 Terrorism시대라고 구분할 수 있고 그 이후 200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난 대량살상무기나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행위가 나타나는 시기를 New Terrorism시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시기와 특징을 분류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Terrorism의 변천과정

구 분	시 기	특 징 및 사 례
고전적Terrorism 시대	~18세기 (Terrorism용어 등장시기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생존권적 이익이나 정치적 대립, 종교적 갈등에서 폭력적 위협이나 암살 등이 자행됨 -인류의 등장과 함께 생존과 지배, 이익을 위한 원초적 무력사용 · 인류 역사상 최초 Terrorism 기록 - 구약성경의 카인의 아벨살인 · 정치적 Terrorism의 대표적 사건 - BC 43년 로마원로원의 줄리어스 시저 암살사건 · 종교적 Terrorism은 BC 66-77의 팔레스타인 종교집단의 시카리(Sicari)라는 Terrorism 집단 결성 → 로마통치에 협력하는 유대인 공격 · 11-13세기 이슬람과격단체의 암살자(Assassins)를 고용 기독교 지도자 암살 → 십자군의 군사력에 Terrorism으로 대항 사령관 지사 칼리프 살해
근대적Terrorism 시대	18세기 ~1960년대 이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적 Terrorism은 민족국가 형성과정에서의 민중해방운동을 위한 폭력적 저항과 국가형성 후 정치적 대립관계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관제 Terrorism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 미국 남북전쟁 후 극우 남부인들의 백인 우월주의 KKK(Ku Klux Klan)단의 Terrorism · 러시아 및 서유럽의 무정부주의자들의 정치적 Terrorism 세르비아 가브리엘 로프린체프에 의한 오스트레일리아 페르디란트 살해 →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제공 · 20세기 러시아(레닌, 스탈린), 독일(히틀러), 이태리(무솔리니) 등의 민중탄압을 위한 관제 Terrorism · 제2차대전과 제국주의에 대한 식민지독립투쟁 → 안중근 의사
현대적Terrorism 시대	1960년대 ~1990년대 뉴 테러리즘의 등장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적 Terrorism의 태동으로 그 양상에 역사상 커다란 변천을 가져온 시기로서 - 국가지원 Terrorism의 발생 - 국제 정치상황과 연관된 국제 Terrorism의 대형화, 정치화 · 이스라엘의 형성과 아랍민족주의의 형성/이슬람 원리주의의 표면화 · 항공기 Terrorism의 등장 및 성행 - 항공기 납치, 공중폭파, 승객공격 등 · Guerrilla international의 형성(1966년, 쿠바, 83개 단체 531명 참가)으로 국제 Terrorism의 협력기반 형성 · 1972년 뮌헨올림픽의 “검은 9월단”의 Terrorism으로 세계적으로 대 Terror 특수부대를 양성하는 계기가 됨(델타포스, GSG-9 등) · 팔레스타인 문제를 중심으로 민족주의적 종교이념대립에 의한 국가지원 Terrorism이 본격화되면서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무차별공격이나 살상무기의 현대화 등 New Terrorism의 양상이 보이기 시작함
New Terrorism 시대	1990년대 후반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적 이념대립에 의한 문화적 단층에서 기인하는 민족적 종교적 Terrorism의 심화 ·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대형공격 발생 (동경지하철역 GAS Terror, 9.11 세계 무역센터 항공기 추돌 등) · Terrorism방지를 위한 선제공격전쟁(preempty-war)발생 · Terrorism과 전쟁의 악순환 발생

4. New Terrorism의 등장

1990년대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종식되면서 국제 정치사회의 재편과 함께 국제 Terrorism환경도 커다란 변화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냉전시대의 기존 국제 정치사회적 대립관계는 서로간의 노선과 지향하는 목표가 분명한 관계에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이들의 주장이나 이념을 확산시키고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Terrorism이 활용되었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특정한 나라나 단체 또는 인물, 기관 등 극히 제한된 목표가 뚜렷이 제시된 상태에서 국지적인 도발이면 충분하였다. 따라서 사전 경고되고, 요구사항을 충분히 밝히며, Terrorist 자신도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불필요한 희생을 강요할 필요가 없었으며 Terror후에도 분명한 자기입장과 행위시도를 밝힘으로써 비교적 예측이 가능하고 일반 시민에 대한 위협이 많지 않은 환경이 유지되어왔다. Terrorism의 양상도 국가지원 Terror단체에 소속된 전사들에 의한 항공기 납치, 중요기관에 대한 폭발물 설치, 요인에 대한 암살 등의 범죄였으며 대표적인 단체로는 PLO, IRA, 적군과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냉전체제 붕괴 이후 국제사회는 소위 일초다강체제로 분화되면서 급격한 세계화와 인터넷에 의한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국제 Terrorism의 양상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와 극좌파 Terrorism단체의 퇴조와 함께 민족해방투쟁이나 이념에 의한 갈등, 국가 권력에 의한 관제폭력 등은 점차 위축되는 반면 종교적 이념에 의한 광신적 Terrorism이나 맹목적 파괴자의 범죄적 Terrorism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소수 민족 분리 독립, 종교적 문화 단층에서 오는 순교적 Terrorism등의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범위나 수단이 국제화, 대대량살상 능력을 가진 생화학적 무기까지 확대되었으며, 특히 일반 불특정다수를 위협하는 무차별적 공격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5년 오움진리교에 의한 일본 지하철역의 사린가스 Terror, 1998년 발생한 케냐 주재 미국 대사관 폭파사건 등을 들 수 있겠다. 특히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이념대립과 갈등은 21세기 개막과 함께 세계를 경악케 한 9.11 세계 무역센터 Terror로 나타났으며 이는 New Terrorism의 결정판이며 세계를 전쟁과 Terrorism의 악순환으로 몰고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Ⅲ. 중동테러리즘의 기원과 대두

1.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종교적 기원과 갈등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고대 문명을 탄생시킨 아랍지역은 세계 최대인 33억의 신도를 가진 기독교와 둘째인 13억의 신도를 가진 이슬람교의 발상지이다. 같은 지역 동일 문화를 토양으로 서로 경쟁적으로 성장한 두 유일신교는 유태교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그 출발과 기원이 같음으로 인하여 많은 종교적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 행동 양태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면서 대립과 경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대립의 뿌리는 구약 성경에 기원을 두고 있다. 즉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이 각각 아랍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면서 정통성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후 중동지역의 전통적 특징인 장자권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지배권으로 발전하여, 수 천년동안 양 민족 간의 경쟁과 흥망성쇠의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AD 610년 마호메트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알라(영어로는 'GOD'이라는 뜻)의 메시지를 듣고 이를 정리하여 코란을 완성하게 되었으며 이를 종교적인 개념으로 아랍민족 중심으로 포교하게 됨으로써 기존 유대교, 기독교와의 종교적 민족적 갈등의 기원이 되었다.

마호메트가 자신의 체험과 신의 메시지를 받은 선자자의 한사람으로 인정해 줄 것을 거부한 주변의 유태교와 기독교에 분노감을 표시하며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신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은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이라고 수정하고 자신과 이슬람교가 정통 아브라함의 후예임을 주장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종교적 갈등이 본격화되었고 이들 간에 대립이 시작된 것이다.

이후 선지자 마호메트의 이슬람교는 아랍민족의 단결을 이루어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고 역사상 최초로 이슬람교를 국시로 하는 신권국가인 움마야드 왕조(632~750)를 이룩하였다. 마호메트의 정통 후계자 칼리파와 움마야드 왕조는 포교와 정복 및 이주를 동시에 추진하여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시리아 이남의 지중해 연안과 북아프리카를 빼앗고,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켜 오늘날의 이라크, 이란 및 중앙아시아

아를 지배하였다. 아랍 민족은 이 지역 전체를 종교적으로 지배한 것은 아니지만 중앙아시아에서 대서양 연안의 모르코, 스페인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아랍제국을 이룩하였으며 이 정복지의 대부분은 기독교 지역이었다. 또한 이 정복을 성전(Jihad)이라고 생각하고 이의 성공을 알라의 선물이라 믿으며 종교적 신앙심을 키워 나갔다. 이들은 정복지에서 아랍민족 우위정책을 고수하면서 감세 혜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화적인 포교 활동을 전개, 광대한 이슬람 문화권을 형성하게 된다.

움마야드 왕조의 아랍제국은 무슬림 간의 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압바스 왕조(750~1258)로 대체되고, 이는 확장과 성쇠를 거듭하여 9세기 중엽부터 분열 양상을 보이며 10세기에는 이름뿐인 제국으로 전락, 13세기에 몰락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나 이시기 동안 종교적 이념과 세력은 확장되어 기독교의 발상지였던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을 이슬람의 종교적 핵심 성지로 만들었다.

이런 과정에서 기독교의 성지를 포함한 타종교 관련 시설들이 제거되었으며, 1095년 십자군 원정이 시작되어 150여 년간의 성지와 인접 지역의 지배권 확보를 위한 전쟁이 지속되는 등 기독교와의 종교적 이념 분쟁과 감정대립이 심화되는 직접적인 과정이 전개되었다. 15세기까지 전성기를 누리던 이슬람의 아랍제국은 유럽의 과학 기술이나 산업 및 사회체제에 서서히 잠식되기 시작하였고 18세기에 이르러 식민지화 되기에 이르렀으며 19세기에 모두 기독교 문명인 유럽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1830년 프랑스에 의하여 알제리가 점령당하고 1839년 영국이 아덴을 점령함으로써 시작된 프랑스와 영국의 중동 지역에 대한 팽창전략은 튀니지(1881), 이집트(1882), 수단(1899), 리비아(1912), 모르코(1912)로 확대되어 제 1차 세계대전의 결과 보호령, 위임 통치령, 피 공동 통치령 등의 명분으로 서방 제국에 의한 전면적인 지배 통치가 완성된 것이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이슬람권에 대한 서방제국의 식민 통치는 중지부를 찍게 되고 해방과 독립을 맞게 되었으며, 새로운 초강대국 미국과 소련에 의한 양극체제의 등장은 경제적인 이권과 더불어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대립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중동 지역에 다수의 아랍 민족 국가의 출현은 1400년 간 지속된 민족적 대립과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종교적 긴장을 해소하는 듯 보였으나 이슬람교가 압도적인 중동지역의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을 복원시키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유럽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지함에 따라 기독교 세계에 대한 이슬람 세계의 경계심과 중요성이 급속히 증가되어 새로운 대립국면으로 등장하였다.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 이래,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보를 위한 폭력적 행동과 이에 대해 아랍의 급진적 행동주의자들의 보복 Terror행위들이 수차례에 걸친 전쟁을 거쳐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이념적 냉전체제의 해체와 더불어 문명간의 충돌로 비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뮤얼 헌팅턴은 그의 저서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에서 서방과 이슬람간의 갈등은 두 종교의 본질과 이들 종교에 바탕을 둔 문명의 성격에서 나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1400년의 역사가 이를 입증한다. 정교를 포함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관계는 폭력으로 얼룩져 있다. 서구가 직면한 근본적 문제는 이슬람 원리주의가 아니라 이슬람이다. 자기네 문명의 우월성과 보편성을 철석같이 믿고 비록 쇠퇴하고는 있지만 자기들을 아직도 우월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세계에 전파할 사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을 거느린 상이한 문명이다. 이것이야말로 이슬람과 서구의 갈등을 불지르는 핵심 성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이희재역, 1997:192)

2. 이스라엘의 형성과 지역적 대립

1896년 “이 소책자에서 내가 논하고 있는 유대인 국가를 재건하고 싶다는 생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로 시작되는 데오드르 헤르츨(Theoder Herzl)²⁾의 「유대 국가」라는 100Page정도의 책자가 빈에서 발행됨으로써 근대 시오니즘 운동이 시작되었다.(다데야마 로지/유광조역, 2002:23)

19세기 후반 서유럽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남아있긴 했지만 조금씩 유대인에 대한 편견의 벽이 허물어져 “해방”이 진행되고 독일 또는 프랑스인으로 되려고 하는 “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였다. 그러나 헤르츨은 1864년 발생한 유대인이었던, 프랑스군 포병대위 드레퓌스의 군 기밀 누설 의혹 사건³⁾을 취재하면서 유대인의

2) 데오드르 헤르츨(Herzl Theodor 1860. 5. 2~1904. 7. 3.)헝가리 부다페스트 출생. 1891~1895년 빈의 「신 자유신문(Neue Freie Presse)」 통신원, 드레퓌스 사건을 보고 유대인 단결을 결심. 1897년 1회 시오니스트대회 개최, 시오니즘 운동 제창, 시온주의의 아버지라 불림.

3) 드레퓌스 사건(Dreyfus Affair) : 1894년 프랑스 참모 본부에 근무하던 포병대위 Dreyfus가 독일 대사관에 정보

국가를 건설하지 않는 한 참된 유대인의 해방은 없다, 동화되더라도 결국 반유대주의에 의해 박해를 받게 된다고 확신하고 「유대 국가」⁴⁾를 집필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조직적인 시오니즘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헤르츨을 중심으로 한 시오니즘 운동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의 “디아스 포라”⁵⁾ 상태의 해석과 “해방”, “동화” 등 정신적인 혼란과 팔레스타인, 신천지 미국 등 다양한 이주지역의 선택 등으로 혼돈의 시기였지만 빠르게 진행되어 1897년 8월 스위스의 바젤에서 시오니스트 회의가 열렸고 시오니스트 기구(후에 시오니스트 회의로 개칭)가 설치되었으며 “바젤강령”⁶⁾을 채택하고 이 강령에서 “팔레스타인 땅에 모국을”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유대민족을 위한 공적인 법으로 보증된 향토 국가의 창설이 본격화 되었다.

구약성서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삼을 것을 맹세하고 유대인 자손에게 물려줄 것을 약속 받은 땅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윗과 솔로몬왕 시대(기원전 10세기경)에 유대왕국의 전성기를 이루었으나 지정학적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의 교차점에 위치한 관계로 주변의 왕조나 민족의 성쇠에 따라 침략과 민족 분쟁으로 인한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AD70년 로마인들에 의해 유대왕국이 멸망한 이래 유대인은 이 지역에서 추방되어 독립된 국가 없이 유럽지역 등에 흩어져 온갖 박해와 탄압, 대량학살 등을 받는 수난의 역사를 이어 왔다. 2차 세계대전 후 약 2000년 만에 온갖 시련의 역사를 극복하고, 히틀러의 유대인 대량학살에 자극을 받은 유럽인들의 인도적 여론과 지지를 바탕으로 시오니즘(Zionism)⁷⁾에 의한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이주는 급속도로 진행되었으며 1918년 5만에 불과하던 유대인은 30년만인 1948년에 76만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지역은 빈 공간이 아니었으며 아랍인들의 조상들이 수 십대에 걸쳐 거주하며 물려준 고향이며 삶의 근거지였다. 1948년 5월 14일 텔 아비브(Tel Aviv)박물관 앞에서 낭독된 민족대표

를 팔았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비공개 군법 회의에서 중신형 선고받음. 직접적인 증거도 부족하고 진범이 고발되었으나 유대인이라는 점이 불리한 판정에 적용.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킴.

- 4) 유대국가(Der Judenstaat, 1896) : 헤르츨의 저서로서 유대인 문제는 오직 유대국가 건설만으로 해결된다는 내용으로 이스라엘 국가 건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 5)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팔레스타인 사람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교리와 생활관습을 지키며 살아 가고 있는 유대인을 가르키는 말.
- 6)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제1차 시오니스트 회의에서 채택한 강령, 팔레스타인의 이주와 향토건설을 규정함으로써 시오니즘을 현실적인 운동으로 변화시킴.
- 7) “시온(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으로 19세기 후반에 나타난 유대국가 설립 운동이라는 정치적 조류, 유대 민족 국가건설을 목표로 하는 유대 민족주의 운동

벤 구리온(David-Gurion)⁸⁾의 독립선언문은 오랜 역사의 시련을 이겨낸 유대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 그리고 종교적 신념과 구원을 증명해주는 결실인 듯 하였으나 이는 아랍민족의 수십 세기 동안 살아온 생활 근거지에 세운 이질적 종교적 신념을 가진 민족국가로써 그 탄생에서부터 양 민족간 생존을 위한 갈등과 대립을 잉태하고 있었다.

아랍권의 정체성도 상당한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있다. 7세기 중엽 아라비아 반도에 살고 있던 아랍민족에게는 선지자 마호메트가 창시한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통일 아랍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일부를 차지하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수세기에 걸쳐 역사적 문화유산을 승계하고 아랍어를 의사소통 매체로 하여 아랍인의 긍지라는 연대의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이들에게 이슬람은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하나의 관습, 생활로 획일적인 종교적 형제애가 형성되었다. 이런 연대의식은 1798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침공⁹⁾에서 아랍 민족주의로 가지화되었고, 러·일 전쟁(1904~1905)과 윌슨(Woodrow Wilson) 미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원칙¹⁰⁾의 영향을 받아 아랍세계의 통합과 민족형성을 위한 공동체 의식으로 발전하였으며 제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서구의 중동지역에 대한 군사력에 의한 지배와 식민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반제국주의, 반 서구주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더욱이 시오니즘운동에 의한 유대인 이주가 시작되어 이스라엘의 독립이 선언되면서 반 시오니즘의 경향과 제 1차 중동전쟁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기독교 문명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이스라엘에 아랍권이 일방적으로 패배하게 됨으로써 아랍 민족주의, 아랍대의(大義) 아래 전 아랍권이 단결하여 반기독교, 반미주의, 반 서방주의가 강하게 등장하고 서방 기독교 문명과 대립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게 되었다.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유대 민족의 이주는 종교적 이념과 민족주의적 대립, 그리고 서방 세계 열강들의 이해관계 속에 1882년~1903년의 제 1차 알리야¹¹⁾의 2만~3만의

8) 벤 구리온(1886~1973) : 이스라엘 초대 수상. 1948. 5. 14. 오후 4시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박물관에서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 주요 저서 <투쟁> 5권이 있다.

9) 1798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정복. 1798년~1801년 간 프랑스의 이집트 지배

10) 1918년 1월 미국 윌슨 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교서에서 14개조의 세계 평화안 제시한 내용 중 하나인 민족자결주의는 세계 약소민족의 해방에 많은 영향을 줌. 우리나라의 3.1운동도 그 영향을 받음.

11)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 1880~1903년의 1차 알리야는 러시아 지역으로부터 음(2~3만명), 1904~1909년의 2차 알리야는 주로 동부 유럽으로부터 음. 제 5차에 걸쳐 25만의 유대인이 이주해옴.

이동을 시작으로 하여 1948년 제 5차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25만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폭력과 공포를 동반한 Terror, 당사자 간의 협상, 국제적 조정 및 UN의 결정 등이 이루어졌으나 평화적 해결과 안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재까지도 같은 지역 내에 역사적, 종교적 정통성을 주장하며 생존권을 건 대립 양상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대에 대한 Terror와 국가 간의 전쟁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시오니즘의 한 꿈은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사막에 꽃을 피웠고 최근의 선진문명에 의해 세계적 강국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미국의 무기와 경제적 지원으로 3차에 걸친 아랍 형제국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국경을 확장하였다. 이런 상황이 아랍인들의 시각에는 이스라엘은 서구의 타락한 물질적 풍요와 유대교를 모체로 한 기독교 사상을 자기네 팔레스타인의 영토에 옮겨놓은 없어져야 할 섬처럼 보인다. 이런 반감과 민족주의의 충돌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서방 기독교 문명권과 중동지역의 아랍 이슬람 민족주의 문명의 충돌양상으로 발전되어 국제 Terror와 이에 대한 응징과 예방이라는 명분하에 전쟁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으며 중동지역을 전 인류를 전쟁의 참화 속으로 유도할 화약고라고 부를 정도로 대립과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3. 이슬람 원리주의 Terrorism의 대두

근대 중동지역의 Terrorism은 초기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 시오니즘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수립에 미온적인 영국과 이를 반대하는 아랍 세력에 대해 시행된 측면이 있다. 1994년 이스라엘 정부가 Terror집단으로 공식 지목한 Kach And Kahane Chai는 1991년 마드리드 협상¹²⁾ 이후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아랍인들을 추방하기 위한 Terror를 지속하고 있는 단체이며, 1995년 아랍 국가들과의 평화협상을 거부하며 라빈 이스라엘 총리를 암살한 이스라엘 극단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표적 단체이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중동의 아랍, 무슬림하면 Terror가 연상되는 경우가 많다.

12) 1991년 10월 미국과 소련의 공동 주축로 이스라엘과 주변 여러 아랍 국가들이 협상 대상으로 1992년 이스라엘 접경지 요르단강 서안 지구(웨스트 뱅크)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해서 제 1단계로 5년의 잠정기간을 두어 자치를 하고 최종적인 지위는 잠정 기간 동안 교섭하기로 합의. 이 안은 "오슬로 협정"으로 이어짐.

이는 이슬람교에 대한 문화적 편견에 의한 부분이 크다. 코란은 정의가 신이 부여한 최고의 가치이며, 폭력은 코란의 도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언가 마호메트의 구전에서는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지켜야 할 행위의 한계를 설정하고 여기에 따르면 군인은 민간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동식물에게도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며 타종교와 다름없이 생명 존중의 교리를 주장하고 있다(허영식, 2002:48).

그러나 이런 Terror와 연관된 편견이 형성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랍 이슬람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Terrorism의 특징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 이루어 진다는 점이다. 이슬람 일각의 비타협적 집단은 현실세계를 이슬람교도와 비 이슬람교도 심지어는 교리상의 순수성을 주장하여 교파와 비 교파를 구분하고 비 교파는 이단으로 규정,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세계 13억에 달하는 무슬림의 대부분이 평화와 안전을 지향할 지라도 극단주의적 폭력을 사용하여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들의 견해를 Terrorism으로 표현하는 이슬람 과격 원리주의 세력이 존재하는 한 이런 종교적, 문화적 편견은 지울 수 없을 것이다.

Terrorism은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하여 발생된다. 중동의 Terrorism은 유대인에 의한 Terror든 아랍 민족에 의한 Terror든 간에 그들의 생존권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정통성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이들은 서로 간에 폭력과 공포를 조성하여 상대방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축출하고 유일한 자신의 민족국가를 수립하려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Terror를 행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과 미국은 소련의 동의를 얻어 유엔 결의 181호¹³⁾에 의해 영국의 위임통치를 중단하고 아랍민족의 반대를 무시한 채,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과 아랍의 양 민족 국가로서의 분할을 확정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유대 민족이 당시 영국의 위임 통치령 지역이었던 팔레스타인 땅에 미국과 영국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민족국가를 세우고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팔레스타인 민족을 축출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또한 소련 공산주의 견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한 팔레스타인 분할 정책은 빠르게 진행되어 1948년 5월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며 이에 반발한 아랍 민족들은 단결하여 수차에 걸친 중동 전쟁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매번 미국과 서방 세계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에 참패를 거듭하였

13) 1947년 1월 유엔 총회 결의 181호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과 아랍인의 국가로 나누어 독립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으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80%를 장악, 정착촌을 건설하였다. 외세에 의해 일방적 힘에 의한 굴복은 저항과 보복을 야기하게 되며 이를 위한 수단 은 Terror가 사용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종교적 신념과 민족의식이 합해지면 더욱 가속화되고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18세기말 식민지 정책이 시행된 이후 아랍지역의 서방 제국주의에 대한 거부감과 종교적 이질감은 이스라엘의 건국 과정, 특히 4차에 걸친 중동전쟁에서 구체화되었으며 아랍세계의 민족의식적인 단결을 가져왔다. 아랍권의 이슬람 Terrorism은 비 이슬람권으로 확산되면서 이 과정에서 세계 도처에 종교적 Terror집단이 생기게 되고 이들의 목표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측을 향하게 되었다. 이는 역사적으로 이슬람에 굴욕과 패배감을 준 세력으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분쟁 과정에서 가시화된 기독교 문화권인 反이스라엘, 反서방, 反미국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제시된 것이다.

급진적, 전투적 이슬람 활동은 이슬람권이 서구화와 근대화를 겪는 과정에서 탄생 하였다.(Yosset Bodansky/최인자.이윤섭 공역, 2001:16) 또한 원리주의라는 용어 자체 도 기독교의 청교도 운동에서 나온 상대적인 지칭으로, 그들 자신은 이슬람의 공동 견해를 공유하는 보통의 무슬림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철저한 이슬람 정치체계를 주장하는 무슬림을 특징화시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슬람 원리주의의 특징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출처인 코란과 예언자 전통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 한다. 이슬람 공동체, 즉 움마(umma : 코란을 축으로 이슬람교를 실천하기 위한 집단)의 통일성이 가능했던 이슬람 초기로의 회복에 지향을 둔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신이 만든 신성한 세상을 기독교 서구 문명이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타도하고 이슬람법, 즉 샤리아(sharia : 인간의 올바른 삶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가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을 규율하는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한다. 따라서 원리주의의 과 격세력은 스스로를 이슬람 대외 명분을 위해 싸우는 전사라고 이해하고 지하드(원래 의 의미는 무슬림의 종교적 내적 장애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의 부활을 역설 하게 된다.

현대 이슬람 원리주의가 본격적으로 세를 확장하기 시작한 것은 1979년 이란-이슬람 혁명이 성공한 뒤이다. 호메이니¹⁴⁾가 반 서방화를 외치면서 왕권과 신권을 하나

14) 호메이니(1900~1989) : 이란의 이슬람 시아파의 최고 지도자, 1978. 2. 1 망명지 프랑스, 파리에서 귀환, 2월9 일 이란에 이슬람 혁명을 성공시킨 인물.

로 합친 이슬람 국가를 세우고자 한 것이 그 시발점이며, 2001년 3월 탈레반이 이슬람 원리주의 정체(政體)를 채택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였으며, 세계 최대 석불 바미안¹⁵⁾(Bamiyan)을 파괴하는 등 철저하게 비 이슬람적인 것을 배척하는 극단주의적 배타주의를 보여줌으로써 세계를 경악케 하면서 그 세력을 확산시켜 가는 추세에 있었다.

이슬람 원리주의의 서구 체계에 대한 적대적 관계는 화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타 Terror집단의 전통적인 금기사항을 초월하여 국가기관의 마비와 대량의 불특정 다수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등 그 폭력의 대상과 범위를 새로운 양상으로 확대해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과격 이슬람 원리주의 Terror단체로서는 팔레스타인계 이슬람 지하드(Islamic Jiharde)와 하마스(Hamas), 레바논계의 헤즈블라가 있고, 9.11 Terror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알카에다와 알제리의 이슬람 무장그룹(GIA) 등을 들 수 있겠다.

열정의 이슬람 저항운동을 의미하는 하마스는 1928년 하산 알 반라(Hasan al Banna)가 창시하였으며 현재는 연합단체 무슬림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지도자 셰이크 야흐메트 야신¹⁶⁾(Sheik Ahmad Yasin)이 주도하였던 대표적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이다. 1993년 이스라엘과 PLO간의 평화협정을 결렬시키기 위해 행한 자살폭탄 Terror로 유명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Terror와 인티파타¹⁷⁾를 대표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이슬람 지하드(Islamic Jihard)는 1979년부터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조직으로 시리아와 이란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헤즈블라(Hezbollah)는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단체 중 가장 큰 규모로 5000여명의 훈련된 게릴라의 비밀결사 조직을 가지고 있다. 서방의 인질이나 항공기 납치 등 대부분의 행위를 주도한 조직으로 “신의 당”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슬람 원리주의 지하드는 1983년 베이루트 주재 미국대사관 폭탄 테러와 10월 미 해병대 사령부 자살폭탄 Terror를 주도한 바 있다. 현재 세계적인 주목의 대상이며 대미 투쟁의 선봉이라 할 수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 조직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Terror기

15) 아프가니스탄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석불(간다라 불상), 이슬람 근본주의 탈레반 정권에 의해 파괴됨. 파괴 현상이 비디오로 촬영되어 세계 언론에 제공됨으로써 파장을 일으킴.

16) 야신 : 1936년 알조우라에서 탄생, 하마스의 정신적 지주로서 대 이스라엘 무장 항쟁을 주도해온 팔레스타인 전설적인 항쟁 지도자. 이슬람 지도자 6명과 함께 하마스를 창립함. 2004. 3. 이스라엘 군사공격으로 사망

17) Intifada : 민중 봉기로서 1987년 12월 이스라엘 점령지인 가자지구에서 난민캠프의 팔레스타인 청년 4명이 군용트럭에 깔려 죽음으로 주둔 이스라엘 군에 대하여 저항하는 봉기로 발전됨.

지와 전사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Terror를 위한 자금망과 Internet를 통한 지령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수의 이슬람 과격단체의 미국에 대한 Terror의 배후이며 2001년 9.11 Terror를 야기시킨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알카에다의 지도자 빈 라덴은 이슬람 테러지원국, 정보기구, 테러 전문가 등, 수많은 이슬람 무장 전사들을 조정하고 지원하며 직접 작전 지휘하는 무장 전사와 팀플레이를 하는 인물로서 전투적 이슬람의 확산이라는 메가 트렌드의 핵심요소이다.

전투적 이슬람 원리주의는 종교운동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정치운동이다. 이라크의 이슬람교 지도자 바키르 알 사드르는 “서구 중독”현상의 확산을 이슬람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으로 보면서 굴종하면서 받아들여 이슬람을 죽이거나 서로 기독교적 현대 문명 체계를 파괴하여 이슬람식의 세계를 건설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의 말리크는 Terror가 이슬람 전쟁 전략의 핵심이라고 말하며 코란식 전쟁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원리주의자들은 서구의 정신은 철저하게 배격하나 서구의 과학 기술만은 철저하게 Terror에 활용한다. 이슬람 원리주의 Terrorism은 전 지구적인 전쟁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전쟁은 다른 문명권사이의 분쟁으로 확대되어 이슬람 문명권과 비 이슬람권, 즉 기독교 문명의 충돌로 확대 발전하게 될 가능성마저 예측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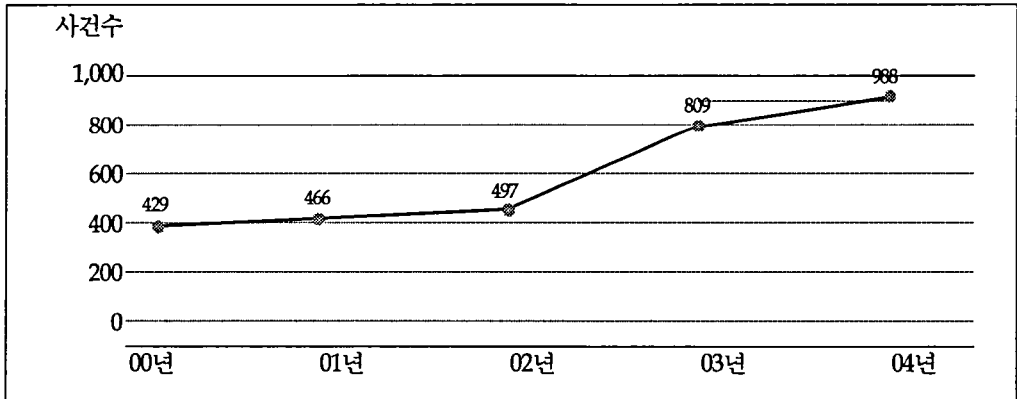
IV. 중동Terrorism의 양상과 전망

1. 국제Terrorism 양상의 분석

국제 Terrorism양상은 9.11 Terror와 이에 대한 전쟁으로 인해 급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Terror의 발생건수는 1990년대 초 소련의 몰락과 공산권의 소멸로 인해 냉전체제하에서 유지되었던 대립과 긴장의 균형상태가 깨지면서 일시에 분출된 인종 문제, 민족주의 대립, 종교적 갈등의 분쟁이 Terror를 증가시켜 93년도에 그 발생건수에서 최고조에 달한 이래 소강상태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PLO간의 유혈분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발생한 9.11 Terror와 보복전쟁 특히 이라크와의 전쟁을

계기로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그 내용면에서도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표 2> 연도별 세계적 Terrorism 발생 건수



출처 : 국정원(2002-2005년도 「테러정세」 재구성)

총 발생건수는 9.11 Terror이후 세계 각국의 대테러 활동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그 증가율이 완만한 상태를 보였으나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하여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쟁전 2002년에 대비하여 2003년은 63%(497건→809건), 2004년은 99%(497건→988건) 증가 되었으며 사상자수도 2003년 11%(9,122명→10,249명), 2004년 79%(9,122명→16,296명) 증가하였다. 이는 국제 테러리즘을 이슬람 원리주의가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전쟁과의 악순환 과정에서 종교적, 민족적 이념대립이 심화되고 표면화되어 반미, 반서방 테러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이라크를 새로운 성전(지하드)의 전초기지로 저항과 보복테러 행위를 강화하고 이슬람 세력의 동조하에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004년 발생한 988건의 테러리즘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첫째, 테러의 발생지역 분포는 중동지역이 672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81건이 이라크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이라크 테러를 주도해온 「알 자르카위」가 「빈 라덴」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알 카에다」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조직명을 「유일신과 성전」에서 「이라크 성전 알 카에다」로 바꾸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 연합세력과 이라크내 임시정부 요인 및 관련시설에 대한 테러 공세를 강화한데 기인한다. 세계 각지에서의 국지적인 분쟁과 테러는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태지역의 아프가니스탄, 인도-파키스탄, 태국 또는 체첸에 의한 러시아내의 테러가 지속되는 경향 이 나타났다.

둘째, 테러의 유형은 전년도와 같이 폭파, 무장공격 및 인질납치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인질납치는 두 배 이상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사건의 81%를 점하고 있는 군사무기에 의한 폭파 및 무장공격은 이슬람 저항세력과 체첸계, 팔레스타인 조직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경향이 이어졌으며, 인질납치는 파병철수와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공격수단 역시 공격의 유형과 같은 맥락으로 폭발물, 총기류, 중화기가 85%를 이루면서 증가추세에 있다.

셋째, 테러의 대상은 민간인과 군, 경, 정부관리가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그 증가율에서는 군, 경 및 관련시설이 2배 가까운 급증세를 보였다. 이는 이라크에서 임시정부 출범이후 저항세력의 군, 경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기 때문이며 전년도와 같이 이른바 Soft Target인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끝으로 테러성향 및 조직별로 분류하면 이슬람 원리주의 56%(556건), 민족주의 30%(297건) 그리고 극좌·우 테러 등이 나머지를 점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슬람 원리주의 및 민족주의의 주요 테러단체들은 대개 종교적 이념 대립의 양상을 띄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테러는 종교적 이념 대립과 문화적 갈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최근 테러성향과 조직을 분류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세계적 Terrorism성향 및 조직

테러성향	주요 테러조직	사건 및 비율		
		2002년	2003년	2004년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이슬람, 사라피스트, 아브사야프 등 그룹 알카에다, 탈레반, 팔레스타인 하마스, 회교지하드, 제마 이슬라미야 등	132건 26%	309건 38%	556건 56%
민족주의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 모하지르 민족운동, 부룬디 민족 해방군, 우간다 신의 해방군, 영국 아일랜드 공화국 (Real IRA), 체첸반군, 이라크 민족주의 등	93건 19%	216건 27%	297건 30%
극 좌	마오이스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붉은 여단, 필리핀 신인민군, 페루의 빛나는 길 등	56건 11%	146건 8%	74건 7.4%
극 우	콜롬비아 연합자위군, 앙골라 완전독립연합, 북아일랜드 얼스터 방위협회 등	4건 1%	7건 1%	2건 0.2%
기 타	불 명	212건 43%	131건 16%	54건 5.4%
총 계	2002년 26개 조직 2003년 38개 조직, 2005년 26개 조직	497건	809건	988건

* 출처 : 국정원, 전거서 재구성

상기 분석에 의한 현대 국제 테러리즘의 경향을 추출하면 국제 테러리즘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급증되고 있으며, 군사력 격차에 의한 패배 후,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 단체들은 이라크를 새로운 전초기지로 하여 반미, 반서방에 대한 보복과 저항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것이 빈번한 테러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부기관이나 군사시설 뿐 만아니라, 미군과 서방제국의 민간시설에 대해 폭발물, 군사용 무기 등에 의한 무차별적 공격이 자행되고 있으며, 또한 주목할 부분은 「알카에다」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의 군사동맹 세력에 대한 공격위협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2. 중동 Terrorism의 전망

역사적으로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전쟁이 그 분기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전쟁과정에서 전쟁 당사국은 물론 전후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주변국들도 전쟁 후에 나타날 문제점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속적인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경쟁을 하게 된다.

21세기 첫 번째 전쟁은 Terror와 이에 대한 보복과 Terror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전쟁으로 시작되었다. 전쟁은 승리보다 전쟁 후 평화를 지키기가 더욱 힘들고 많은 노력과 희생이 요구된다. 이런 교훈을 미국은 이라크전 후 분명하게 배우고 있다. 엄청난 군사력과 지원으로 3주만에 전쟁의 승리를 선언하였지만 전후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막강해 보이던 미국의 군사력도 무력해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라크 내에서 수많은 게릴라식 Terror로 인해 오히려 전면전시보다 더 큰 인적손실이 발생하고 미국내의 Terror에 대한 위협도 그 빈도수가 급증한 상태이다. 또한 국내적인 정치적 부담과 함께 우방국 국민들에게 전쟁에 대한 정당성과 지원을 설득하는데 실패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라크 내부의 민족주의적 반발과 중동지역 이슬람권의 종교적 이념의 대립을 가열 시켰으며 이런 상황이 미국에 대한 Terror를 증폭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다.

현재 외형적으로 미국의 중동지역에 대한 로드맵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나 중동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Terrorism의 양상과 피해는 악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쟁은 그 후유증으로 테러를 유발하게 된

다. 여기에 종교적 이념과 민족적 감정이 개입되면 이는 더욱 심화되고 지속적일 수 밖에 없다.

중동지역의 Terrorism 전망은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Terror의 근절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한다는 강력한 대외정책 앞에 국가지원 Terrorism이나 Terror에 의한 국제적 분쟁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금세기 전쟁을 통해 표면화된 이슬람 형제애는 반미, 반서방, 반기독교적 감정으로 심화될 것이며 이슬람 원리주의 전사들에 의한 국지적인 Terror는 지속될 것이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최신희(6.26자)가 인터뷰한 이라크 자살폭탄 테러범 마르와 아부 우베이다(20세, 가명)는 “현재 지원자가 수백명에 이른다. 작전에 투입되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 곧 출동하기를 희망하고 있다”(중앙일보, 2005.6.28:17)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라크 내부에서 알자르카위가 주도하고 있는 알카에다의 미군 및 연합세력에 대한 공격, 통제불능상태의 자생적 저항세력에 의한 게릴라식 군사용 무기에 의한 공격 현상이 격화될 것이며 이는 세계 전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2004년 발생했던 988건의 국제 Terror사건을 분석해 보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결론이다. 이런 현상은 석유자원이나 전후 복구사업에 대한 경제적 이권 등의 문제와 이라크 주둔 군대의 철수 또는 국민여론 유도를 통한 우방국의 이탈 등을 목적으로 한 전략적 Terrorism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한국이 직면한 위협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그 유형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나 위협, Soft Target인 민간인에 대한 납치, 협박 등 매스컴을 활용한 여론조성이나 효과증대 전략을 구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위협의 확산은 2004. 3. 11. 스페인 마드리드 통근열차 폭파 사건(사망 191명, 부상 1200명)과 2005. 7. 7 영국 런던 지하철역과 2층버스 폭파 사건(사망 40여명, 부상 1000여명 추정)으로 현실화되었으며, 스페인은 이 사건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이라크 파병 군대를 철수시킨 바 있다. 이런 여론 유도를 노린 전략적 테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며, 더욱 우려할 부분은 자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생성되고 인터넷에 의해 교육되어 테러(Downloadable Terrorism)가 자행된다는 사실이다(중앙일보, 2005.7.19:43). 이를 위한 종교적 이념과 훈련 정보 및 전술 지령은 “알바르타 온라인 매거진”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무차

별 공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위 다운로드블 지하드(Downloadable Jihad)가 확산될 전망이다. 이런 현상이 평범한 이웃집 이슬람 청년을 테러리스트로 만들 수 있고 인종 종교 문화간 대립 양상으로 발전되고 있다. 국내 체류 무슬림과 불법 노동자의 유입 등은 테러 정책과 관련 관심의 대상이 될수 있다.

V. 결 론

21세기 신 세계질서의 형성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부상된 Terrorism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세계 각국은 이를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안보적 차원에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국제 Terrorism을 리드하고 있는 중동지역 Terrorism은 인류의 수세기 동안 농축되어온 종교적 이념대립과 갈등, 민족적 전통인 장자권에 기초한 정통성의 상속과 지역적 생존권 등이 대립된 종교, 문화적 단층에서 나타나는 충돌양상으로 볼 수 있으며, 9.11 WTC Terror를 분기점으로 하여 이슬람 원리주의 Terrorism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적 서방세력의 대립으로 구체화 되었으며 Terror 근절을 위한 전쟁과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21세기 인류는 2차에 걸친 전쟁을 치루었으며 Terror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국제협력과 국가별 대책이 수립되고 있으나 그 전망은 부정적이다.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군사력을 위주로 한 강경한 대외정책은 세계 각국에게 Terror와 반 Terror의 선택을 강요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므로써 국가지원 Terrorism이나 Terror에 의한 국제분쟁은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권 아랍민족의 심정적 단결과 종교적 이념의 대립에 의한 적대감은 심화될 것이며 전투적 이슬람 원리주의에 의한 대미·대서방 Terrorism은 지속될 것이고 우방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슬람 테러리즘이 서구 유럽의 자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생성되고 사이버 공간을 통해 온라인으로 육성되는 양상이 나타남으로써 자국민간에도 인종 종교 문화간의 대립과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석유자원과 전후 복구사업에 따른 자국의 이권,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중국과 소련 등의 전략적 제휴와 견제 등 국제간 복잡한 이해관계는 중동 Terrorism에

대한 구조적 심화를 부추길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Terror위협은 세계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은 없으며 인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전 년도의 마드리드 통근 열차 폭파와 최근의 런던 지하철역 테러가 잘 말해주고 있다.

미래의 갈등은 경제나 이념이 아니라 문화적 요인에서 촉발될 것이며(Jacques Delors) 문화적 분쟁은 문명과 문명이 만나는 단층에서 발생한다(이희재역, 1997:28). 이는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위협이다. 이에 대한 대책의 수립은 군사력에 의한 힘이나 테러조직을 소탕하는 테크놀로지 차원이 아닌 인종, 종교와 민족 등 문명의 패선에 대한 근본적 접근을 통한 능동적인 장기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1) 단행본

공군전투발전단(2003). 「이라크 전쟁-항공 작전 중심으로 분석」. 충남: 공군전투발전단.

국가정보대학원(1999). 「안보론-이론, 환경, 전략」. 서울: 국가정보대학원.

국가정보원(2003). 「2002년도 테러 정세」. 서울: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2004). 「2003년도 테러 정세」. 서울: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2005). 「2004년도 테러 정세」. 서울: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2005). 「월간 테러 정세」. 서울: 국가정보원.

권촌 편저(2002). 「대테러 세계대전」. 서울: 한림미디어.

김관중(2001). 「21세기 전쟁」. 서울: 도서출판 두남.

김두현·최선태(2002). 「안전관리론」. 서울: 백산출판사.

다나카 시카이저(2002). 박소영 역. 「9.11의 진실」. 서울: 이다미디어.

다테야마료지저(2002). 유공저 역. 「아랍 vs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역사와 현재」, 서울: 가람기획.

로베르트 반 데 바이어저(2002). 손도태·곽순례 역. 「이슬람과 서양」. 서울: 좋은 글.

리처드 하스 외 저,장성민 역(2002). 「9.11 테러 이후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서울: 김영사.

마스다 다카유키저(2004). 이상술 역. 「세계분쟁지도」. 서울: 해나무.

새무엘 헌팅터 저, 이희재역(1997).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안황권·김상돈(2003). 「범죄피해자학」. 서울: 백산서당.

이희수·이원삼 외(2003). 「이슬람」. 서울: 청아 출판사.

요제프 보단스키 저,최인자·이윤섭 역(2001). 「오사마 빈 라덴」. 서울: 명상.

이춘근(2003). 「미국의 세계 전략과 이라크 전쟁」. 자유 기업원 국제 문제 연구실.

정항석(2002). 「왜 21세기 화두는 미국과 테러인가」. 서울: 평민사.

최진태(1997). 「테러, 테러리스트 & 테러리즘」. 서울: 대영 문화사.

허영석(2002). 「지구촌 시대의 국제 테러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서울: 한국문화사.

2) 논문

김성환(2003). "미국의 세계 전략과 신 보수주의의 미래". 국방대·고려대 학술세미나 논문.

김재창(2003). "새로운 국제 질서와 한미 동맹". 국방대·고려대 학술세미나 논문.

박정규(2000). 「중동 테러리즘이 아랍, 이스라엘 평화 협상에 미치는 영향」. 국방대 안전보장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성일(2003). "21세기 테러리즘의 전망 및 대응방향".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논문.
이정민(2003). "이라크 전쟁과 북한이 본 전략적 교훈". 국방대·고려대 학술 세미나 논문.
최하규(2004). "뉴테러리즘의 한국적 적용모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공안실무 관련 논문집 1호, 한국공안정책학회.
홍성표(2003). "이라크전과 새로운 군사 안보 패러다임", 국방대·고려대 학술세미나 논문.

2. 국외 문헌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1987). Terrorism in the United States 1987, Counterterrorism Section, Terrorist Research and Analytical Center,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December 1987, p. iv.
Francis Fukuyama(1989). 「The End of History」. Washington D.C.
Green Gion(1981). 「Introduction to Security」. Washinton D.C.
J. L. Gaddis(2002). 「A Grand Strategy of Transformation」. Foreign Policy, Issue 133.
Jacques Attali(1998). 「Dictionaries du XXI Siecle」. Paris.
John Ankerberg(2001). 「Fast Facts on Islam」. Oregon.
Marwan Bisharra(2001). 「Palestine/ Israel」. Paris.
Noam Chomsky et al.(2002). 「Iraq Under Siege」. The deadly Impact of Sanctions and War Cambridge.
World Market Research Center(2003). 「The Index of International Terrorism」. 2003. 8.19.
Yosset Bodansky(2001). 「Bin Laden : The Man who Declared War on America」. Washington D.C.

3. 기타 자료

- 김수남(2003). 「중동·아연구」. 국방대학교 미간행자료.
황병무(2003). 「탈냉전기의 미국 안보전략 방향과 한반도」. 국방대학교 미간행자료.
중앙일보(2003). "9.11.은 끝나지 않았다". 9. 10:3.
중앙일보(2003). "미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양쪽에서 고전" 8. 20:3.
중앙일보(2003). "알카에다+ 후세인 추종 세력 대미 테러조직 결성, 한국국민 대미 테러 혐의 파문". 8. 11:3.
중앙일보(2003). "알카에다 배후 가능성". 9. 1:3.
중앙일보(2003). "알카에다, 부시 노린다.". 8. 19:3.
중앙일보(2005). 6. 28:17.

ABSTRACT

A Study on the Rise and prospect of the Middle East Terrorism

Choi, Kee Nam

During reformation of the world order in the 21st century, the terrorism has been showing up as a new value and rising up as a core element of determining human being's quality of lives.

The middle east's terrorism is leading the international terrorism and it is originated from the religious ideology which has formed for centuries and struggles for regional influence. This is the conflict aspect coming from the opposition of religious ideologies and cultural dislocations.

It concludes as confrontation between the terrorism of Islam fundamentalism and western christianity that America is leading after the terrorist attacks on the World Trade Center on September 11, 2001. There is little prospect for an improvement of their relationship.

The Terrorism supported by government might be eradicated by America's drastic anti-terrorism policy. However, it will be serious and spread all over the world that the terrorist attacks against America and western countries is acted by militant warriors of Islamic fundamentalism, uniting Arab and Islamic peoples' emotions against America. Terrorism is urgent menace to Korea and it is needed to take measures to cope with it considering their religion and people thoroughly.